

한·일 농업유전자원 연구 협력 물꼬 튼다

농진청, 한·일 농업유전자원 보존·활용 업무 협의회 열어

한·일 양국이 농업유전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물꼬를 튼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수원 중부지소에서 한·일 농업유전자원 보존·활용 업무 협의회를 열고 양국 간 농업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농자협회(APSA) 회의 당시 우리 측 대표단이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이하 일본농연구기구, NARO)를 방문해 협력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7일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방문한 일본 측 대표단에는 코모토 나츠오 일본



농연구 유전자원센터 부소장 에바나 카오루 진병크실장, 이리가 히로타카 일본 농림수산성(MAFF) 연구정책과 유전자원담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국의 유전자원 보존시설을 둘러보고, 보존·활용 체계와 연구 현황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유전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유용 자원 발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표현형 특성 평가 △증상이 어려운 유전자원의 안정적 재배 방안 △유전자원의 안전적 보존 등 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유전자원의 전략적 관리와 과학적 활용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과 일본농연구기구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양국 간 공동 연구와 국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유전자원의 과학적 평가 및 활용 범위를 넓혀 국제 농업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욱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이번 한·일 전문가 교류는 농업유전자원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지역 신협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피해 입은 조합 위해 따뜻한 손길'

전북신협 70조합, 폭우 피해조합에 지원금 3000만원 전달

전북 지역 신협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7일, 도내 70개 신협이 지난 9월 군산지역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제일신협과 군산반석신협에 총 3천만원의 수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군산제일신협과 군산반석신협의 영업장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군산제일신협은 ATM 2대와 공과금 수납기, 업무용 PC 25대 등 약 1억2천

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두 조합은 시설 피해로 한동안 정상 영업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최대 일 회장은 직접 군산제일신협과 군산반석신협을 찾아 각각 2천5백만원과 5백만원의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 관내 70개 신협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상생정신을 다시금 보여줬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전북신협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 임직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10월 K-푸드 플러스 수출 112.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

농식품 85.9억불, 농산업 26.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7.8% 증가

10월 기준 K-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전년보다 5.7% 늘어난 1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누적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 달러)보다 5.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선·가공식품)과 농산업(동물용 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등)을 포괄하는 통합 수출지표다.

농식품 수출액은 85억 9천만 달러로 5.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Middle East, 20.4%↑), 유럽연합(EU·영국 포함, 14.8%↑), 북미(13.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7~10월 사이에는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중동(23.5%↑)과 중화권(7.7%↑)이 두드러졌다.

품목별로는 라면(21.7%↑), 조제품 기타(13.0%↑), 커피조제품(21.3%↑), 김치(6.4%↑), 포도(50.9%↑), 아이스크림(22.1%↑)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라면은 매운 볶음면 열풍과 한류 콘텐츠 마케팅, 유행망 확대로 중국(54.4%↑), 미국(21.3%↑), 일본(24.0%↑) 등 주요국에서 호조를 보였다.

조제품 기타(건강기능식품 등)는 '이너뷰티' 트렌드와 K-헬스 브랜드 인식 확산으로 유럽(48.5%↑), 중국(17.7%↑) 등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김치는 건강식품으로서의 인식 확산과 한류 영향으로 일본(4.4%↑), 캐나

다(17.0%↑), 대만(11.8%↑) 등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농산업 분야 수출도 26억 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품목별로는 동물용 의약품(24.9%↑), 농약(16.0%↑), 비료(10.5%↑), 종자(9.9%↑)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라이선(동물용 영양제) 수출이 급증했다.

농약은 베트남(43.1%↑), 인도네시아(14.8%↑) 등 아시아 시장에서 완제품 수요가 늘며 수출이 확대됐고, 비료는 태국(13.6%↑), 베트남(27.0%↑) 등 동남아 시장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겨울철 농업 피해 사전대비 현장점검 실시

전북농협이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업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지난 6일 부안 지역의 주요 시설하우스와 농업 취약지를 방문해 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비닐하우스 보강 지주 설치 여부 △결속근 상태 △전기시설 안전관리 △재해 대비 예비자재 보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북농협은 현장 점검과 함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병해 예방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안내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관내 9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해 사전 대비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영농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신속한 피해 파악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 전시회 참관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산업트렌드 파악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KAIF 2025)' 참관단을 구성해 현장 참관을 찾았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회원사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유일의 건축 설계·자재 중심 B2B·B2C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건축·자재 산업의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자재 부스, 설계기술 세미나, B2G 상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인테리어·IT·건설기술·기계설비·정책홍보·작품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이 소개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수도권 중



심의 산업 전시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회원사 간 교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박차

푸드테크 산업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기술 경쟁력 강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체식품 개발과 기술지원 강화,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바이오진흥원은 푸드테크 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 2023년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5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체식품 및 스마트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42'라는 숫자는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상징한다.

바이오진흥원은 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 기업 간담회와 방문을 지속하며 산업계의 요구와 기술적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

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결과,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오징어 젓갈 대체식품 개발 과제를 발굴했다.

오징어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젓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 원료를 개발하고, 저염·저칼로리 양념 기술을 확보해 30~40대 젊은 소비자층과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이로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고구마밀랭이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해 '고구마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향산화 증류주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 정부 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던 고구마 껍질과 결속살 등 부산물을 활용해 향산화 기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증류주를 개발함으로써 식품 자원의 순환 활용과 지역 농산물의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